'무관중→유관중' 언제? KBO, 개막일 확정 다음 과제

지난 27일 프로야구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연습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구 수성구 연호동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무관중 경기로 열리고 있다. 방송사 카메라가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

내달 5일 어린이날 개막…코로나19로 당분간 무관중 체제 이어져

10%-20%-30% 등 단계적 입장 계획…사회적 거리두기 '고민'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가 5월5일 어린이날 개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 개막일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큰 산 하나가 버티고 있다.

개막 이후 당분간은 무관중 체제가 이어진다. 그러나 시즌 내내 관중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그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수일째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의 개학도 시동을 걸고 있다.

프로야구도 총 정원의 10%, 20%, 30% 등 단계적 관중 입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사람 간 1m)를 이어간다면 정원의 10% 밖에 관중석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이다.

KBO 코로나19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중인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야구장 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외에서 펼치는 스포츠인데다 관중들이 계단식 좌석에 한 방향으로 착석하기 때문에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중교통과 영화관 등 실내 대중 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착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인 프로야구 관람은 그보다 감염 위험이 낮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만에 하나 야구장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급속한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무관중에서 유관중으로 전환한다면 관중들 전원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혹시 모를 감염이 발생한다면 당일 야구장을 찾았던 사람들 모두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KBO의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이미 KBO는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한 야구장 안전 관리를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 야구장 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무관중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단들의 재정적 피해는 커진다. 구단뿐만 아니라 야구장 근처 지역 소상공인들, 마케팅·이벤트 업체, 구장 입점 업체들의 피해도 피할 수 없다. 관중 유입이 적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2017년 펴낸 '스포츠산업백서'에 따르면 야구 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3869개에 이르며 그 종사자 수는 1만3198명이다. 3년이 지난 현재는 그 수치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적지 않은 이들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KBO리그는 최근 점차 산업으로서 규모를 키워오던 중이었다.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야구 산업 역시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관중 유치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단, 분명한 것은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26일 '2019 프로축구 K리그1 개막미디어데이'에서 12개팀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는 5월 9일 무관중 경기로 개막한다고 발표했다.

2020 FA컵, 5월9일 무관중 경기로 개막

"볼키즈-시축 없어"

2020 하나은행 FA컵 1라운드가 5월9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됐던 '2020 하나은행 FA컵'을 5월9일 개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무관중 경기 진행을 전제로 일정을 재조정했으며 K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3월14일로 예정됐던 1라운드는 5월9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1라운드에는 K3리그 10개 팀, K4리그 11개팀, K5리그 11개 팀이 참가한다. 1라운드 승자 16개 팀과 K2리그 10개팀, K3리그 6개 팀이 참가하는 2라운드는 6월6일 펼쳐진다.

2라운드 승자 16개 팀과 K리그1 8개 팀이 참가하는 3라운드는 7월1일 진행되며 ACL 참가팀인 수원삼성, 울산현대, 전북현대, FC서울이 합류하는 4라운드(16강)는 7월15일 열린다. 8강전은 7월29일, 4강전은 10월28일 열릴 예정이다. 모든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FA는 당초 4강전(준결승전) 역시 결승전과 마찬가지로 홈앤드어웨이 방식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K리그와 ACL 일정 변경에 따른 경기 가능일자 부족으로 인해 4강전을 단판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다.

결승전은 홈앤드어웨이로 진행되며 날짜는 미정이다. K리그 승강결정전 및 K리그 팀의 ACL 결승 참가 여부를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 은퇴

"무릎통증으로 더 이상 어려웠다"

올림픽서 금메달만 6개 획득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35·러시아명 빅토르안)가 공식적인 선수 은퇴를 선언했다.

안현수는 28일(한국시간) 러시아어 성명을 통해 "미래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인해 경기 후 회복, 치료 및 재활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무릎 통증으로 더 이상 선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물 의혹 등으로 인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안현수는 2019-20시즌 빙판에 돌아와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지만 끝내 무릎 통증이 발목을 잡았다.

안현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였다.

고교 시절이었던 2002년 태극마크를 달고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세계선수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선 3관왕(1000m, 1500m, 5000m 남자 계주)에 올랐다.

하지만 2008년 왼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하락세를 겪었다. 대표 선발전에서도 탈락하는 등 부진이 계속됐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의 러브콜을 받아들인 그는 러시아로 귀화, 소치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하지만 안현수는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도핑스캔들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ESPN 입장 변화無" KBO리그 미국 중계, 낙관 어려워

KBO리그의 미국 진출이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계를 원하는 미국 ESPN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28일 "ESPN의 입장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우리도 어려우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돈을 내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래도 우리 대행사(에이클라)가 전향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SPN은 KBO리그 해외 중계권을 갖고 있는 에이클라와 협상에서 무료 중계를 요구해 논란을 낳았다. ESPN의 요구대로라면 에이클라 측에서 위성송출 비용, 영문 더티피드(해설 중계 음성, 자막이 깔린 영상) 제작 등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KBO는 "한국 프로야구의 해외 시장 진출은 좋은 일이지만, 처음부터 공짜 콘텐츠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협상 당사자 에이클라 역시 ESPN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